

갈등을 신앙으로 승화시킨 이그나티우스의 신학과 사상연구

: 이그나티우스의 일곱 서신을 중심으로

조윤희

(그리십교회 담임목사, 조직신학)

〈한글초록〉

이그나티우스의 일곱 서신은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갈등의 시대를 표현한다. 그의 일곱 서신은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폴리갑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테오포로스(Θεοφόρος)’라 칭하며 시작한다. 이런 그의 서신은 ‘그리스도론’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에베소 인들에게」에서 부터 「서머나 인들에게」 보낸 여섯 통의 서신은 교회를 대상으로 기록된다. 그리고 한 통의 편지는 「폴리갑에게」 보내는 개인 서신이었다. 이 일곱 서신은 크게 세 가지의 갈등으로 그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교회와 관련되어 있다. 전형적인 갈등은 유대주의와 영지주의 이단과 관련된 교리적 갈등과 교회의 연합에 대한 갈등이었다. 두 번째는 로마 정부의 핍박과 관련된 갈등이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관련된 갈등이다. 이그나티우스는 ‘교회론’과 ‘감독제도’,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으로 갈등에 대해 답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있었다.

신학의 확립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초기 교부들의 시대는 신학이 포괄적으로 다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그나티우스의 일곱 서신을 통해 ‘교회론’과 ‘감독제도’, ‘신앙’에 대한 신학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그나티우스는 이단들과의 갈등에 대해 「서머나 인들에게」보내는 서신에서 ‘보편교회(*καθολική ἐκκλησία*)’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다. 「에베소 인들에게」 보낸 서신에서는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신학적 견해를 밝힌다. 그는 고난과 두려움에 대한 갈등을 ‘그리스도인의 신앙’으로 답을 한다. 이그나티우스는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갈등을 치유한다. 따라서 그의 신학과 사상연구는 우리로 하여금 중요한 것을 돌아보게 한다. 첫째는 신앙과 신학의 정체성을 돌아보게 한다. 두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갈등에 대한 답을 찾도록 한다.

주제어: 그리스도, 갈등, 순교, 이단, 일치, 교회

I. 들어가면서

시대를 불문하고 역사는 갈등하는 구조 속에 놓여진다. 때로는 환경적인 문제로, 때로는 세력 간의 이해 차이로 일어나는 갈등의 문제는 그 사회와 그 시대의 큰 변혁의 조건이 되기도 한다. 인간의 죄는 ‘사망’과 함께 갈등의 문제를 야기 시키는 원형이 된다. 그리고 세상은 불완전한 가운데 놓여진다. 따라서 갈등은 인간이 살아가는 바탕 위에 항상 공존하게 된다. 인간의 죄 사함에 따른 대속을 불러일으켰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 세상 가운데 세워진 교회 또한 세상의 불완전한 가운데 세워진다. 그러므로 교회 또한 완전한 구조를 가지지 못하며, 갈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가진다. 초기 기독교의

역사는 여기에서 예외가 될 수 없었다.

초기 기독교 역사를 대변하고 있는 ‘초대 교회’는 크게 두 가지의 갈등구조를 내포하고 있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영향에 의한 갈등구조였으며, 두 번째는 환경에 따른 갈등의 구조였다. 초기 기독교 역사를 대변하고 있는 유세비우스(Eusebius, A.D. 263-339)에 따르면 예수님의 산 증인이었던 사도 베드로의 뒤를 이어 이그나티우스(Ignatius of Antioch, A.D. 35-108)는 안디옥 교회의 두 번째 감독이 된다.¹ 그는 하나님을 증거했다는 이유로 로마정부와 갈등을 빚는다. 이 일로 인해 로마로 압송되던 이그나티우스는 압송 도중 서머나에서 교회를 향해 네 통의 서신을 기록하게 된다. 그리고 드로아에서는 교회와 개인을 향해 세 통의 서신을 보낸다.² 로마로 압송되어 순교 현장을 향하던 이그나티우스가 이와 같이 일곱 통의 서신을 기록한 것은 크게 세 가지의 갈등 구조가 그로 하여금 교회와 개인을 향해 서신을 쓰도록 한다. 첫 번째는 교회를 향한 로마의 압제에 따른 갈등이 서신을 기록하게 만든다. 두 번째는 이단으로 불거진 교리적 문제와 교회와 관련한 갈등이었다. 세 번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길과 관련한 순교에 따른 갈등이었다.

지금까지 이그나티우스의 서신에 대한 연구는 고고학적으로, 또는 문서비평을 통해 서신의 진위를 가리는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었다.³ 그리고 이그나티우스 서신은 포괄적인 방식으로 전체를 요약하듯

¹ Eusebius Pamphilus, *The Ecclesiastical History of Eusebius Pamphilus*, trans. C. F. Cruse (Oregon: Watchmaker Publishing, 2011), 3:36, 109; 바티스타 문딘은 자신의 저서 *Storia della Teologia I* 에서 이그나티우스를 베드로와 에보디우스에 이어 안디옥의 세 번째 감독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그 또한 이렇게 말한다. “이그나티우스에 관해 역사적으로 중요하고 가장 권위 있는 원천은 에우세비우스(유세비우스)의 기록이다”라고 말한바 있다. Battista Mondin, *Storia della Teologia*, 조규만 외 3인 역, 『신학사 1』 (서울: 가톨릭출판사, 2012), 126; August Franzen, *Kleine Kirchengeschichte* (Germany: Verlag Herder, 1965), 34.

² Philip Schaff,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Vol. II*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22), 660-664; Henry Bettenson, ed., *The Early Christian Father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3-4.

연구되어왔다. 본 연구는 이그나티우스의 서신에 담겨 있는 갈등에 초점을 맞추어 그의 신학이 함께 조명된다. 여기에 대한 이그나티우스의 직접적인 자료는 그의 일곱 서신이 전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이그나티우스의 일곱 서신의 텍스트를 통해 당시 시대적 상황을 연구하여 갈등적 요소를 찾아내고, 이를 신학적으로 조명하게 될 것이다.

먼저 이그나티우스의 갈등에 따른 신학적 사상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그의 인사말의 접근을 통해 갈등에 따른 그의 변증신학과 일치와 연합사상을 비취본다. 그리고 일곱서신의 내용 속에 증거되고 있는 세 가지의 갈등인 로마 정부, 교회와 관련된 갈등과 함께 이그나티우스의 순교 신학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조명해나가게 된다. 그리고 그는 이런 갈등의 요소들을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갔는지 ‘교회론’과 ‘감독론’,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론(순교론)’을 통해 밝혀나게 된다. 그리고 이런 이그나티우스의 신학과 사상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와 시대에 어떤 함의를 주고 있는지 결론 부분에서 간략하게 제시하게 된다.

II. 서신의 인사말에서 나타나는 이그나티우스의 신학적 사상(思想)

1. ‘데오포로스’에 나타나는 갈등의 변증신학

이그나티우스는 일곱 서신에서 자신을 “이그나티오스 호 카이 데오포로

³ Cyril. C. Richardson, ed., *Early Christian Fathers*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6), 83-86.

스(Ἰγνάτιος, ὁ καὶ Θεοφόρος)”로 소개한다.⁴ 번역하면 “데오포로스라고 칭하는 저 이그나티우스는”이다. ‘데오포로스(Θεοφόρος)’는 ‘데오스(θεός-하나님)’와 ‘포로스(φορος-지고 가는 자)’의 합성어이다. 그는 자신을 가리켜 스스로 ‘하나님을 지고 가는 자(모시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다. 시릴 리차드슨(Cyril Richardson)은 『초기 기독교 교부들』(*Early Christian Fathers*)을 편역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하나님에 의해 영감을 받은 자(God-inspired)’로 번역하고 있다.⁵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머무는 것이 강조된다. 로마에 압송되어가는 이그나티우스가 일곱 서신의 인사말에서 자신을 가리켜 ‘데오포로스’라고 칭한다. 이것은 자신이 보내는 서신에 대한 전반적인 성격을 대변하는 이미지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시릴 리차드슨은 이그나티우스의 서신을 번역하면서 ‘데오포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은 단순한 명사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그의 예언적 성격을 나타내기 위한 별명이었을 것이라고 말한다.⁶

이그나티우스는 ‘데오포로스’라는 호칭을 통해 서신을 읽는 독자들에게 당시의 여러 상황들을 대변하면서 자신을 변증하고 있다. 로마 정부로 말미암은 갈등, 이단문제에 따른 갈등, 그리고 교회 안의 갈등과 함께 자신의 신앙과 그 전통성을 변증한다. 헤르만 바빙크(Herman Bavinck, A.D. 1854-1921)에 따르면 사도들의 뒤를 이은 속사도 교부들에게는 특징적인 모습이 있었다. 그 가운데 하나는 그리스도를 중심의 위치에 두는 것이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계시하는 분으로, 대속을 통해 생명을 주신 분으로 그 모습을 증거한다.⁷

⁴ Ignatius, “To the Ephesians,” in *Early Christian Fathers*, ed. Cyril. C. Richardson(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6), 87; “To the Magnesians,” 94; “To the Trallians,” 98; “To the Romans,” 102; “To the Philadelphians,” 107; “To the Smyrnaeans,” 112; “To Polycarp,” 117.

⁵ Ignatius, “To the Ephesians,” 87; “To the Magnesians,” 94. “Theophorus, ‘God-inspired.’ The point would seem to be that, despite his status as a convict, he makes prophetic utterances in praise of the churches.”; “To the Trallians,” 98; “To the Romans,” 102; “To the Philadelphians,” 107; “To the Smyrnaeans,” 112; “To Polycarp,” 117.

⁶ Richardson, ed., *Early Christian Fathers*, 76-77.

그리스도를 중심의 위치에 두는 것은 이그나티우스와 함께 속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했던 로마의 클레멘스(Clement of Rome, A.D. 35-110)에 계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교회 내의 여러 당파로 인해 분쟁에 휩싸이게 된 고린도 교회의 당면한 문제 앞에 클레멘스는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는 것으로 갈등 문제를 풀어간다. 「클레멘스의 제1서신」의 제7장 이하에서는 분쟁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시야를 당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에 고정하도록 한다.⁸ 그리고 역겨운 경쟁을 선동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하게 갈등을 해소하도록 한다.⁹

‘하나님을 지고 가는 자’ 또는 ‘하나님에 의해 영감 받은 자’를 호칭하고 있는 ‘데오포로스’는 현실 앞에 놓여 있는 갈등에 대해 두 가지 측면을 변증하고 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관련한 자신의 모습을 변증한다. 이그나티우스는 「에베소 인들에게」 제3장에서 그리스도를 가리켜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증거한다.¹⁰ 그리고 제5장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즐거워하는 자’란 것을 강조한다.¹¹ 「마그네시아 인들에게」 제7장에서는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하나셨다’는 사실을 증거한다.¹² 「빌라델피아 인들에게」 제7장에서는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을 본받으신 분’으로 알린다.¹³ 그리고 「서머나 인들에게」 제3장에서는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합된 분’으로 변증한다.¹⁴ 이그나티우스가 호칭하고 있는 ‘데오포로스’는 그리스도를 닮은

⁷ Herman Bavinck, *Reformed Dogmatics Vol. 2*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4), 280.

⁸ Clement of Rome, “Commonly Called Clement’s First Letter,” in *Early Christian Fathers*, ed. Cyril. C. Richardson(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6), 7:1-7; 12:7; 21:6; 49:6, 46-47, 49, 54, 66.

⁹ Clement of Rome, “Commonly Called Clement’s First Letter,” 14:1-16:17, 50-52.

¹⁰ Ignatius, “To the Ephesians,” 3:2, 88.

¹¹ Ignatius, “To the Ephesians,” 5:1, 89.

¹² Ignatius, “To the Magnesians,” 7:1, 96.

¹³ Ignatius, “To the Philadelphians,” 7:2, 110.

‘그리스도인’으로서 갈등 앞에 놓인 자신의 모습을 변증하고 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계시하는 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자신이 지금 걷는 길이 그렇다는 것을 변증한다. 데오포로스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당하고, 로마를 향한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대변하면서 변증하고 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변증하고 있다. 이그나티우스는 하나를 이루는 교회 공동체를 추구하고 있다. 교회를 중심에 두길 원하는 그의 사상은 「서머나인들에게」 제8장에서 ‘보편교회(*καθολικὴ ἐκκλησία*)’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함으로써 그 모습을 더욱 분명히 했다.¹⁵ 신앙과 교리, 공동체의 조직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보편적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때 모든 것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변증이였다. 「에베소인들에게」 보낸 서신의 제20장에서는 한 신앙 안에서 교회의 감독과 장로회에 귀를 기울이도록 한다. 이때도 하나를 이루는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다.¹⁶ 뿐만 아니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구원’에 따른 변증 또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다.¹⁷ ‘하나님을 지고 가는 자’ 또는 ‘하나님에 의해 영감 받은 자’로서 갈등에 따른 문제와 관련하여 ‘데오포로스’는 그 사역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중심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데오포로스’는 자신의 절대적 신앙이며, 중심 사상인 그리스도를 통해 영육에 따른 포괄적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¹⁴ Ignatius, “To the Smyrnaeans,” 3:2, 113.

¹⁵ Ignatius, “To the Smyrnaeans,” 8:2, 115.

¹⁶ Ignatius, “To the Ephesians,” 20:2, 93.

¹⁷ Ignatius, “To the Trallians,” 2:1, 98-99; James Bethune-Baker, *An Introduction to the Early History of Christian Doctrine* (Cambridge: Fellow and Dean of Pembroke College, 1903), 121.

것을 변증하고 있었다.

2.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하는 (갈등에 따른) 일치와 연합사상

1)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십자가 그리고 일치와 연합

이그나티우스의 중심사상을 일곱 서신을 통해 증거하려면 단연코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는 「에베소 인들에게」 보낸 서신의 첫 마디인 인사말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고통’을 받고 있는 신앙을 독려한다.¹⁸ 뿐만 아니라 「마그네시아 인들에게」 보낸 서신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이름답게 감독을 따를 것과 일치를 강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한다.¹⁹ 그리고 「트랄레스 인들에게」 보낸 서신에서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그리스도와 연합할 것’을 통해 밝힌다.²⁰ 그리고 「로마 인들에게」 보낸 서신에서는 ‘순교’의 진정한 가치를 ‘그리스도 안에서’ 찾도록 문안하며, 격려한다.²¹ 그리고 「빌라델피아 인들에게」 보낸 서신에서는 장로와 감독이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임명됐다는 것을 밝힌다.²² 「서머나 인들에게」에게 보낸 서신에서는 진실을 논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에 문안하는 것을 볼 수 있다.²³ 일곱 서신 가운데 유일한 개인 서신이었던 「폴리잡에게」 보낸 서신에서는 ‘그리스도를 자신의 감독으로 모시고 있는’ 폴리잡에게 문안한다.²⁴ 이와 같이 이그나티우스의 일곱 서신은 전체적으로 그리스도를 조명하고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조명할 때 그리스도의 신성과

¹⁸ Ignatius, “To the Ephesians,” 87-88.

¹⁹ Ignatius, “To the Magnesians,” 94.

²⁰ Ignatius, “To the Trallians,” 98.

²¹ Ignatius, “To the Romans,” 102.

²² Ignatius, “To the Philadelphians,” 107-108.

²³ Ignatius, “To the Smyrnaeans,” 112.

²⁴ Ignatius, “To Polycarp,” 117.

인성과 함께 그리스도가 이룬 사역이 조명된다. 인사말에서 ‘데오포르스’가 갈등에 따른 변증의 전반적인 요소를 담고 있었다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연결은 사역과 관련하여 갈등에 따른 문제를 ‘일치’와 ‘연합’으로 대변하고 있다. 이때 그리스도의 사역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일치와 연합이었다.

이그나티우스가 인사말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리스도(Χριστός)’는 ‘기름 붓다(to anoint)’를 뜻하는 ‘크리오(χρίω)’에서 파생된 단어이다. 이것을 번역하면 ‘기름부음 받은 자’를 뜻한다.²⁵ ‘기름부음을 받은 자’로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구속자 ‘예수’의 사역이 조명되고 있다. 구약성경에 따르면 ‘기름부음을 받은 자’의 직분에는 세 가지가 있다. ‘왕’, ‘선지자’, ‘제사장’이다. 이 가운데 이그나티우스가 ‘그리스도’를 통해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직분은 ‘제사장’ 직분이었다. ‘제사장의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대속의 제물로 자신을 십자가에 드렸던 직분이었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결정적인 사역이었다.

이그나티우스는 일곱 서신에서 ‘그리스도’가 구원 사역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십자가로 이룬 것처럼 성도가 교회 공동체와 일치를 이루고, 교회는 하나의 교회로 일치와 연합을 이룰 때 십자가가 강조된다. 그는 「에베소 인들에게」 보낸 서신 제9장에서 십자가를 일치와 연합에 따른 갈등을 해결해주는 ‘기증기’로 표현하고 있다.²⁶ 그리고 제18장에서는 ‘구원과 영생’에 따른 갈등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로 소개한다.²⁷ 「트랄레스 인들에게」 보낸 서신 제11장에 의하면

²⁵ “Now it is to be noted that the title ‘Christ’ pertains to these three offices: for we know that under the law prophets as well as priests and kings were anointed with holy oil. Hence the illustrious name of ‘Messiah’ was also bestowed upon the promised Mediator.”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 John McNeill, trans. Ford Lewis Bartles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0), 2.15.1; Donald A. Hagner, *World Biblical Commentary: Vol. 33a, Matthew 1-13* (Columbia: Word Incorporated, 1993), 9.

²⁶ Ignatius, “To the Ephesians,” 9:1, 90.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하여 열매를 맺는 ‘가지’로서 역할을 한다. 이런 십자가가 「로마 인들에게」 보낸 서신에서는 영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영적전투의 ‘무기’가 되기도 한다.²⁸ 이그나티우스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일곱 서신의 인사말에 등장시키면서 독자들로 하여금 십자가를 통해 현 상황의 갈등을 이겨나가도록 격려하고 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제사장의 직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랐던 예수님처럼 자신은 그런 걸음을 걷고 있다는 것을 변증하듯 증거하고 있다.

2) 사도들의 고백적인 신앙을 증거해내는 일치와 연합

사도들의 가르침을 신앙의 고백으로 담은 ‘외아들’과 “우리 주”에 대한 신앙고백과 관련된 「사도신경」의 형성은 주후 2세기 중엽이었다.²⁹ 비록 사도들이 직접 기록하고 문서화 한 것은 아니지만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른 고백을 담고 있다. 「사도신경」이 공식적으로 문서화 되기 전, 구전에 의해 교회는 그 가르침을 따랐다.³⁰ 베드로의 가르침을 받았고, 사도 바울과도 그 맥을 함께하고 있었던 이그나티우스는 사도들의 직접적인 영향 가운데 놓여 있었다.³¹ 사도들의 가르침과 고백을 담고 있는 「사도신경」은 첫 고백을 이렇게 시작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고백은 제자들의 고백이기도 했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신 중요한 가르침이기도 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된다는 가르침은 당시

²⁷ Ignatius, “To the Ephesians,” 18:1, 92.

²⁸ Ignatius, “To the Romans,” 5:3, 105.

²⁹ J. van Genderen & W. H. Velema, *Beknopte Gereformeerde Dogmatiek*, 신지철 역 『개혁교회 교의학』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8), 729.

³⁰ Williston Walker, *A History of Christin Church*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22), 60-61.

³¹ Ignatius, “To the Magnesians,” 13:1-2, 97.

유대 공회와 매우 골이 깊은 갈등을 만들어낸다. 이런 갈등의 불씨는 이그나티우스가 살아가던 그 시대에도 변함없는 갈등의 불씨였다.³²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인사말을 통해 이그나티우스는 자신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사도들의 가르침은 곧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다.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인사말은 자신의 가르침은 사도들의 가르침, 그리고 고백과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특히 이그나티우스의 서신에 담겨진 인사말은 바울 서신서의 인사말을 보는 것 같다. 그리고 믿음과 관련하여 고난 가운데 놓여진 성도들을 격려했던 「베드로전서」의 시작을 보는 것 같다.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 있던 소아시아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산소망’ 가운데 자신들이 놓여있다고 격려한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강조한다. 이그나티우스의 일곱 서신의 인사말은 이런 베드로 서신을 닮았다고 말할 수 있다. 리용 가톨릭대학 교수로서 교의학과 종교학을 가르치며 교부문헌 총서인 「그리스도교 원전」(*Sources chrétiennes*)을 발행했던 앙리 드 뤼박(Henri de Lubac)은 이그나티우스가 「빌라델피아 인들에게」 보낸 서신의 양식은 바울의 나열을 자신의 것으로 삼은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다.³³

「빌라델피아 인들에게」 보낸 서신의 제5장에서 이그나티우스는 로마를 향한 순교의 길에서 ‘복음서(Gospel)’와 ‘사도서(Apostles)’가 자신의 갈등을 치유하는 위안이 되었다고 밝힌다.³⁴ 당시 교부들의

³² Ernst Dassmann, *kirchengeschichte I*, 하성수 역, 『교회사 I』 (왜관: 분도출판사, 2007), 39.

³³ Henri de Lubac, *La mystique et l'anthropologie dans le christianisme*, 꼭진상 역, 『그리스도교 신비사상과 인간』 (화성시: 수원가톨릭대학교 출판부, 2016), 116.

³⁴ “οὐκ ἐγὼ δὲ, ἀλλ’ Ἰησοῦς Χριστός, ἐν ᾧ δεδεμένος φοβοῦμαι μᾶλλον, ὡς ἔτι ὦν ἀναπάρτιστος· ἀλλ’ ἡ προσευχὴ ὑμῶν εἰς θεόν με ἀπαρτίσει, ἵνα ἐν ᾧ κλήρω ἤλεθην ἐπιτύχω, προσφυγῶν τῷ εὐαγγελίῳ ὡς σαρκὶ Ἰησοῦ καὶ τοῖς ἀποστόλοις ὡς πρεσβυτερίῳ ἐκκλησίας (Yet your prayers to God will make me perfect so that I may gain that fate which I have mercifully been allotted, by taking refuge in the ‘Gospel,’ as in Jesus’ flesh, and in the ‘Apostles,’ as in the

권위는 성경에 따른 충실한 해석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정통성에 있었다. 「트랄레스 인들에게」 보낸 서신의 제7장에 의하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곧 이단들과의 구별점이기도 했다. 당시 유대주의적 율법적 사고관과 헬레니즘을 바탕으로 한 이단들의 가르침은 교회로 하여금 ‘그리스도론’과 ‘구원론’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벗어나도록 만든다. 그리고 갈등 가운데 빠져들게 한다. 반면 사도들의 가르침은 정통성을 형성하며 잘못된 교리에 빠져서 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쫓대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³⁵

이그나티우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일치, 그리고 사도와 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통해 자신의 사역을 증거하고 있다.³⁶ 유세비우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이단들을 경계하며, 교회를 향해 격려할 때도 ‘사도들의 전승’을 벗어나지 않도록 권면하는 ‘사도전승’의 대변자였다.³⁷ 여기에 대해 교부학자였던 아달베르 G. 함만(Adalbert Gautier Hamman)은 이그나티우스의 신앙을 가리켜 “사도들에게 전해 받은 것을 고백하는 신앙”으로 표현하고 있다.³⁸ 그리고 또 한 명의 교부학자였던 J.N.D. 켈리(J.N.D. Kelly)는 이그나티우스에 대해 말하기를 “그는 그리스도 및 사도와 일치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았다”라고 밝힌바 있다.³⁹ 교부들의 권위는 사도들로부터 전해져 온 신앙을 보존하고 바르게 가르치는데 있었다.⁴⁰ 이와 같이

presbytery of the Church).” Ignatius, “To the Philadelphians,” 5:1, 109.

³⁵ Ignatius, “To the Trallians,” 2:2, 99; 7:1, 100.

³⁶ Ignatius, “To the Trallians,” 12:2, 101; “To the Romans,” 4:3, 104; “To the Philadelphians,” 9:1, 110; “To the Smyrnaeans,” 8:1, 115.

³⁷ Pamphilus, *The Ecclesiastical History of Eusebius Pamphilus*, 3:36, 109-111; Mondin, *Storia della Teologia I*, 126.

³⁸ Adalbert Hamman, *How to Read the Church Fathers* (London: SCM Press LTD, 1993), 9.

³⁹ J. N. D. Kelly, *Early Christian Doctrines* (London: Adam & Charles Black, 1968), 33.

⁴⁰ Kelly, *Early Christian Doctrines*, 48.

이그나티우스가 인사말에서 나타내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인사말은 단순한 문장의 나열이나 형식을 갖추는 요식이 아니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인사말을 통해 교회로 하여금 사도들의 고백이 담긴 신앙에 따른 일치와 연합을 제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3) 고난과 갈등을 이겨내는(신앙으로서) 일치와 연합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증거했다는 이유로 로마 정부로부터 갈등을 빚어낸다. 이 문제로 그는 로마로 압송당한다. 그의 압송은 순교를 예고하고 있었다. 이그나티우스는 「로마 인들에게」 보내는 서신 제5장에서 자신의 압송에 대해 이렇게 표현한다. “로마로 가면서 열 마리의 표범들 사슬에 매여 ... 맹수들과 싸우고 있습니다.”⁴¹ 이 짧은 문장은 로마로 압송되고 있는 이그나티우스의 갈등을 간접적으로 읽을 수 있게 한다. 그리고 그의 일곱 서신은 ‘이단’과 ‘일치’, ‘순교’ 등의 문제를 다루면서 교회 안팎과 신앙에 따른 갈등의 소재들을 독자들로 하여금 알게 한다. 이때 모든 서신의 인사말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것이 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였다. ‘하나님 아버지(θεοῦ πατρός)’와 ‘예수 그리스도(Ἰησοῦ Χριστός)’는 ‘일치’와 ‘연합’의 표상(表象)이었으며, 갈등 요소에 대한 답이었다. 모든 갈등의 근원적인 문제의 해결점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일치’와 ‘연합’ 안에 그 답이 있었다. 「에베소 인들에게」, 「트랄레스 인들에게」, 「빌라델피아 인들에게」 보낸 서신의 인사말에는 이런 모습이 더욱 뚜렷하게 부각되고 있다.

⁴¹ Ignatius, “To the Romans,” 5:1, 104.

... 여러분의 일치와 선택의 근원은 여러분이 우리의 하나님인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의해 받은 진정한 고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행복하다고 여겨질 자격이 있습니다.(Ep)⁴² ...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그분에게 선택되었으며, 그분의 진정한 사랑거리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소망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으로 온전한 평화를 가지게 되었으며 그분과 함께 연합하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Tral)⁴³ ... 아시아의 빌라델피아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해 ‘데오포로스’라고 하는 이그나티우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인사합니다. ... 하나님의 자비의 대상이며 경건한 연합으로 단단히 짜여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쁨은 우리 주님의 수난 안에서 가지는 깊고 지속적인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넘치는 자비에 의해 여러분은 그의 부활을 철저히 확신하고 있습니다.(Phi)⁴⁴

이그나티우스가 인사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각시키고 있는 이유는 「에베소 인들에게」 보낸 서신의 제1장에도 잘 나타난다. ‘고난과 희생’이었다.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은 아버지의 뜻을 일치시키는 것이며, 연합으로 연결된다.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자는 그리스도와 ‘일치’, ‘연합’을 이루게 되며 주변과 환경에 따른 갈등에도 넘어지지 않는 ‘참된 제자’가 된다.⁴⁵ 이그나티우스는 구원을 이루고 있는 핵심을 그리스도와 연합에서 찾고 있었다.⁴⁶ 그는 복음이 있기까지 먼저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결과의 열매였던 부활을 강조한다. 「로마 인들에게」 보낸 서신과 「빌라델피아 인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이런 사실을 밝히고 있다.⁴⁷ 이그나티우스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부활의 원형이었다.⁴⁸ 이 신앙이 그리스도인과 연합을 이룬다.

⁴² Ignatius, “To the Ephesians,” 87-88.

⁴³ Ignatius, “To the Trallians,” 98.

⁴⁴ Ignatius, “To the Philadelphians,” 107.

⁴⁵ Ignatius, “To the Ephesians,” 1:1-2, 88-89.

⁴⁶ Kelly, *Early Christian Doctrines*, 164-166.

⁴⁷ Ignatius, “To the Romans,” 6:1, 105; “To the Philadelphians,” 9:2, 111.

그리고 그리스도와 일치된 신앙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고난과 갈등을 헤쳐나가고, 이겨나가게 되는 것이다.

Ⅲ. 일곱 서신이 증거하고 있는 세 가지 갈등

1. 로마 정부와의 갈등

이그나티우스가 안디옥의 감독으로 있었던 그 시기는 도미티아누스(Titus Flavius Domitianus, A.D. 81-96)의 뒤를 이어 트라야누스(Marcus Ulpius Trajanus, A.D. 98-117)가 로마를 다스리고 있었다. 두 황제가 로마를 다스리던 그 시기는 기독교의 박해가 극에 도달하게 된다.⁴⁹ 로마 제국의 제1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Augustus, B.C. 63-A.D. 14) 이후 로마 정부는 황제 중심의 권력 강화를 위해 ‘황제숭배 사상’에 박차를 가한다.⁵⁰ ‘황제숭배사상’은 중앙정부에 대한 충성심과 함께 절대적인 만족은 ‘로마로부터’라는 등식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황제가 세상의 구원자로 등장한다.⁵¹ 이를 위해 많은 신전들이 건립되었으며, 수많은 신봉자들을 거느리게 된다. 그러나 ‘황제 숭배’는 집단적 충성심과 신의 제국을 돌본다는 의식 외에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것을 제공하지 못한다. 이런 가운데 로마 황제들에 의한 ‘황제숭배사상’은 우상숭배를 배격하는 기독교와 근본적인 갈등을 겪는다.⁵² 더욱이 로마제국에 급속히 퍼져 나갔던 기독교의 영향력

⁴⁸ Kelly, *Early Christian Doctrines*, 463.

⁴⁹ Dassmann, *kirchengeschichte* 1, 156-163.

⁵⁰ Dassmann, *kirchengeschichte* 1, 113-117.

⁵¹ Dassmann, *kirchengeschichte* 1, 117.

⁵² Jaroslav Pelikan, *The Emergence of the Catholic Tradition(100-600)*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1971), 27-28; Karl Suso Frank, *Lehrbuch der Geschichte der Alten Kirche*, 하성수 역, 『고대 교회사 개론』 (서울: 가톨릭출판사, 2008), 181-183.

은 ‘황제숭배사상’이 주는 것보다 더 큰 만족을 사람들에게 주게 된다. 이로 인해 기독교는 로마 정부에 대해 강력한 갈등을 빚어내며, 생명까지 위협받는 탄압의 주요 표적물이 된다.⁵³

이그나티우스가 안디옥의 감독으로 있던 시대는 로마 정부와 결탁한 유대교에 의해 기독교는 이중고의 핍박을 받는다. 이전의 기독교는 로마 당국에 의해 유대교의 한 부분으로 여겨졌으며, 박해의 대상이 아니었다.⁵⁴ 그러나 황제 트리아누스에 의해 기독교는 ‘반국가적 적대세력’, ‘반인류적인 불법종교’로 낙인이 찍히고 박해를 받는다.⁵⁵ 그런가 하면 낙태에 따른 아이의 ‘유기’, 부부관계를 쉽게 종결짓는 로마의 관습 등이 기독교인들의 문화와 충돌을 일으키며 갈등을 표출해낸다.⁵⁶ 복합적인 충돌이 기독교를 사지로 몰아갔던 것이다. 이그나티우스는 「로마 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로마로 압송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가리켜 “세상의 군주에 의해 유괴되고 있다”라고 밝힌다. 그리고 자신을 유괴하는 자의 목적이 “나의 경건을 악용하려는 것에 있습니다”라며 자신의 압송이 로마 정부와 갈등에 따른 것임을 확인시킨다.⁵⁷ 당시 로마의 고관이었던 플리니우스(Gaius Plinius Secundus, A.D. 61-113)는 트리아누스에게 보낸 서신에서 기독교인들을 처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표출해낸다. 그는 기독교 신앙으로 생겨난 충돌에 대해 황제의 조언을 구한다. 황제는 여기에 두 가지 답을 준다.⁵⁸ 하나는 죄목을 찾을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으로

⁵³ Louis Berkhof, *The History of Christian Doctrines* (London: Banner of Truth, 1991), 28; Kelly, *Early Christian Doctrines*, 6-7.

⁵⁴ Walker, *A History of Christin Church*, 48.

⁵⁵ Franzen, *Kleine Kirchengeschichte*, 56-57; Schaff,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Vol. II*, 46.

⁵⁶ Diarmaid MacCulloch, *A History of Christianity: The First Three Thousand Years*, 박창훈 역, 『3천년 기독교 역사 I: 고대사』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3), 206.

⁵⁷ Ignatius, “To the Romans,” 7:1, 105.

⁵⁸ A. M. Ritter, *Kirchen-und Theologieggeschichte in Quellen: Alte Kirche*, 공성철 역, 『고대교회 : 교회와 신학의 역사 원전』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19), 59-62.

신고되고, 확인되면 무조건 처벌할 것을 명한다. 또 다른 하나는 기독교인이란 것을 포기하고, 후회하며, 용서를 구하는 자는 로마의 자비로 용서해줄 것을 명령한다.⁵⁹

... 나는 판결을 내리는데 있어서 ... 범죄가 없다 하더라도 단지 그 이름 때문에(그리스도인) 처벌되어야 하는지 ... 사형으로 위협하면서 두세 번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완고한 자들을 처형하였습니다. ... 그들은 어떤 범죄를 행한 것이 아닙니다. 절도, 약탈, 간통 같은 것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 그들의 식사는 죄 없는 평범한 식사였습니다. ... 그래서 나는 조사를 연기하고, 황제의 조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⁶⁰

이그나티우스가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그는 여러 곳을 거치게 된다. 이것은 그의 선택이 아니라 로마 정부의 선택이었다. 로마 정부는 이 과정을 통해 두 가지 측면의 갈등을 교회를 향해 부추기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속사도 교부인 이그나티우스의 죽음을 알리면서 교회들로 하여금 소망과 희망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두 번째는 공포와 절망감에 휩싸이도록 만들어 기독교를 스스로 떠나도록 한다. 이그나티우스가 로마로 압송당하는 과정에서 기록한 「로마 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이런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이그나티우스는 압송 과정에서 두 가지 사실을 밝힌다. 첫 번째는 자신을 압송하는 군사들의 모습을 가리켜 당장 자신을 잡아먹을 것 같은 ‘열 마리의 표범들’로 묘사하고 있다. 이것은 자신의 압송이 많은 고난과 두려움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두 번째는 자신은 이 고난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그나티우스의 이 고백은 자신을 향한 변증을 넘어 교회를 향하고 있었다. 로마 압제로 인해 갈등 가운데 놓여 있던 교인들로 하여금 넘어지는 자가

⁵⁹ Franzen, *Kleine Kirchengeschichte*, 58.

⁶⁰ Franzen, *Kleine Kirchengeschichte*, 57-58

아니라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어라는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었다.

나는 모든 교회들과 서신을 하면서 그들 모두에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자발적으로 죽는 것임을 깨달을 것을 요청합니다.(Rom 4:1) ... 나는 열 마리의 표범들의 시슬에 매여 밤낮으로, 땅과 바다를 통해 시리아에서 로마로 가면서 야수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불의로 나는 더 나은 제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Rom 5:1)⁶¹

이그나티우스가 증거하고 있는 갈등과 관련한 일곱 서신에서 우리는 복합적인 측면을 발견하게 된다. 첫 번째는 이그나티우스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난에 따른 갈등의 문제가 복합적인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갈등의 첫 출발은 유대 공회로부터 시작되었다. 이제는 교회 내의 분파를 형성하는 유대주의자들과 영지주의자들을 뛰어넘어 로마 정부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두 번째는 갈등의 문제는 피하는 것이 해결점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에 대해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트리아누스 황제의 통치 기간 안디옥에서 있었던 국부적인 박해로 이그나티우스는 순교당한다.⁶² 이때 순교를 앞두고 있었던 이그나티우스는 로마 정부로부터 가해오는 박해에 따른 갈등을 자신처럼 ‘참된 제자’가 되는 적극적인 자세로 이겨나가도록 권면하고 있었던 것이다.

⁶¹ Ignatius, "To the Romans," 4:1; 5:1, 104.

⁶² H.R. Drobner, *The Fathers of The Church: A Comprehensive Introduction*, 하성수 역, 『교부학』 (예관: 분도출판사, 2015), 120.

2. 교회와 관련한 갈등

1) 이단과의 교리적 갈등

사도들에 의해 교회가 세워지고, 그 이후 교회가 세워질 때도 교회는 유대교적 형틀 속에서 형성된다. 이런 영향력은 주후 2세기 중반까지 지속된다. 기독교 신학에 대한 변증가들이 등장하기 전, 기독교 저술가들의 사상은 유대적 사상의 틀 가운데 있었다.⁶³ 그리고 또 하나, 초기의 교회는 헬레니즘에 따른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헬레니즘이 낳은 구약성경의 70인 역본은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속에서도 동일하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 그리고 플라톤(Plato, B.C. 427-B.C. 347)에 의한 ‘이데아 세계’와 ‘물질의 세계’에 따른 사상들,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스토아적 사상들이 교회 속에 영향을 끼친다.⁶⁴ J.N.D. 켈리에 의하면 당시의 철학은 지성을 가진 자들이 선호하는 종교 중의 하나였다.⁶⁵ 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은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Clement of Alexandria, A.D. 150-215)는 플라톤의 철학적 가르침이 히브인들로부터 비롯되었다며 「티마이오스」의 가르침을 그 예로 든다.⁶⁶ 이그나티우스 이후 교부로 활동했던 클레멘스는 헬레니즘적 사상으로 사고했다. 그는 그노시스파에 대해 긍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었으며,⁶⁷ 플라톤적 철학의 요소를 가지고 기독교 철학의

⁶³ Kelly, *Early Christian Doctrines*, 17-18.

⁶⁴ Theo Kobusch, *Christliche Philosophie: Entdeckung der Subjektivität*, 김형수 역, 『그리스도교 철학: 주체성의 발견』(서울: 가톨릭출판사, 2020), 19-22; Kelly, *Early Christian Doctrines*, 15-17; Dassmann, *kirchengeschichte I*, 146.

⁶⁵ Kelly, *Early Christian Doctrines*, 9-17.

⁶⁶ “초기 교부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철학 사상은 플라톤과 신플라톤주의의 철학이었다. ... 세속을 떠나는 윤리 정신, 금욕, 마음의 평정을 추구하는 스토아주의의 윤리 사상은 당시 그리스도교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펠리칸은 주장한다. Pelikan, *The Emergence of the Catholic Tradition(100-600)*, 35; Kobusch, *Christliche Philosophie: Entdeckung der Subjektivität*, 19-22:

⁶⁷ Clement of Alexandria, “On Spiritual Perfection,” ed. Henry Chadwick-J. E. L. Oulton, *Alexandrian Christianity*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6), 93-105.

길을 개척했다.⁶⁸

이그나티우스 당시 교회에는 내부의 갈등을 조장하는 대표적인 두 세력이 있었다. 하나는 율법적 틀을 통해 교리적 갈등을 유발시킨 유대주의였다⁶⁹ 자로슬라브 펠리칸(Jaroslav Pelikan)에 의하면 모세가 전해준 율법준수를 중요하게 여겼던 유대사상은 기독교 초기뿐만 아니라 기독교 내부에서 지속적인 갈등을 이끌어낸다.⁷⁰ 초기 기독교 사상과 함께 발달했던 에비온주의는 유대주의로부터 발생한다. 기독교 최초의 이단이 되었던 이들은 구약에 뿌리를 두며 그리스도의 신성과 동정녀 탄생을 거부한다. 그리고 유대적 율법과 의식을 주장한다.⁷¹ 이 분파주의자들은 사도 바울의 적대자들이었으며, 바리새인의 유형이었다.⁷² 이레나이우스(Irenaeus, A.D. 130-202)는 이단을 논박하는 자리에서 교부들 가운데 최초로 에비온주의를 정식으로 거론한다. 그리고 이들을 향해 “인간의 탄생이라는 묵은 누룩 안에 머무는 자들”이라며 그리스도의 신성을 거부하고 있는 이들을 질타한다.⁷³

그리스도의 신성과 동정녀를 통한 탄생을 거부하는 유대주의 이단과 갈등에 대해 이그나티우스는 「에베소 인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우리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었습니다”라며 교리적으로 분명한 입장에 선다.⁷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부정하고 율법준수를 주장하고 있는

⁶⁸ Bernard McGinn, *The Foundations of Mysticism: Origins to the Fifth Century*, 엄성욱 역, 『서방 기독교 신비주의의 역사(1)』 (서울: 은성출판사, 2015), 167.

⁶⁹ Dassmann, *kirchengeschichte I*, 46.

⁷⁰ Pelikan, *The Emergence of the Catholic Tradition(100-600)*, 13-14.

⁷¹ Ralph Del Colle, *Christ and the Spirit: Spirit-Christology in Trinitarian Perspectiv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158-159.

⁷² Berkhof, *The History of Christian Doctrines*, 29.

⁷³ Irenaeus, Bishop of Lyons, “The Refutation and Overthrow of the Knowledge Falsely So Called,” in *Early Christian Fathers*, ed. Edward Rochie Hardy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6), III.11.7, 381; V.1.3, 386.

⁷⁴ Ignatius, “To the Ephesians,” 18:2, 92-93.

유대주의자들을 가리켜 「마그네시아 인들에게」 보낸 서신 제10장에서 ‘상한 누룩’을 증거하는 자들로,⁷⁵ 「빌라델피아 인들에게」 보낸 서신 제6장에서 ‘사악한 계교와 속임수’를 사용하는 자들로 여기고 있다.⁷⁶ 이런 유대주의 이단은 교회 내에 분파를 일으키고, 그릇된 교리를 가르치는 주범이었으며, 이들이 걸어가는 길은 ‘그리스도의 수난과 일치하지 않는 길’이었다.⁷⁷

여러분은 진리의 빛의 자녀이므로 분파와 거짓된 교리에서 피하십시오. ... 나쁜 목초지를 멀리하십시오.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셨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경작하지 않으셨습니다. ... 만약 누군가 이단의 길을 걷는다면 그는 수난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Phil* 2:1-3:3) ... 지금 누군가가 당신에게 유대교를 전파한다면, 그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 분파를 피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아버지를 본받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십시오. (*Phil* 6:1-7:3)

또 다른 하나는 영지주의 이단이었다. 이들은 교회 내에 소개되고 있는 거짓된 교사의 대명사이기도 했다. 종교 혼합주의가 일반화되면서 ‘그노시스(γνώσις)’ 즉, ‘지식’ 또는 ‘지혜’를 의미하는 영지주의는 1-4세기 지중해 동부 지역에서 많은 수를 확보하면서 교회를 위협하게 된다.⁷⁸ 그리스도에 대해 가현설을 주장했던 이들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따른 ‘인성’을 부인하며, 죽음과 부활을 허구적인 것으로 여긴다. 물질세계를 부정했던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하나님은 사람으로 세상에 출몰하셔 오신다는 것은 불가능했으며, 가설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었다.⁷⁹

⁷⁵ Ignatius, “To the Magnesians,” 10:2, 97.

⁷⁶ Ignatius, “To the Philadelphians,” 6:2, 109.

⁷⁷ Ignatius, “To the Philadelphians,” 2:1-3:3; 6:1-7:3, 108-110.

⁷⁸ William C. Placher, *A History of Christian Theology: An Introduction* (Kentuc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83), 45; Berkhof, *The History of Christian Doctrines*, 30-32; Frank, *Lehrbuch der Geschichte der Alten Kirche*, 329-330.

⁷⁹ Placher, *A History of Christian Theology*, 48.

이런 영지주의자들에 의한 가현설을 교회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이그나티우스의 견해였다. 이그나티우스는 영지주의자들처럼 ‘로고스’를 ‘내재적 이성’에 두지 않는다. 그는 ‘로고스’를 ‘선포된 말씀’으로 받아들인다. 자로슬라브 펠리칸의 주장에 따르면 이것은 그가 ‘로고스’를 철학적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었다.⁸⁰ 이그나티우스는 ‘로고스’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면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따른 ‘참 신성’과 ‘참 인성’을 제시하고 있다.⁸¹

이그나티우스는 그리스도에 대해 가현설을 주장하는 영지주의 이단을 특별히 경계했다. 「에베소 인들에게」 보낸 서신의 제7장과 「서머나 인들에게」 보낸 서신 제1장과 제2장, 그리고 제5장에서 그는 동정녀에 의한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을 밝힌다. 이와 함께 그리스도의 ‘인성’과 구원에 따른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의 사실을 증거하며 영지주의자들의 가현설을 교리적으로 반박한다.⁸² 그리고 「트라레스 인들에게」 보낸 서신의 제4장에서는 영지주의자 이단을 가리켜 ‘아침꾼’으로, 제6장에서는 ‘다른 음식’과 ‘맹독을 주는 자’로, 제7장에서는 ‘성전 밖에 있는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다.⁸³ 이런 영지주의자들은 교회와 감독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신약을 해석하면서 갈등을 고조시킨다.⁸⁴

그분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하나님의 뜻과 권능에 따라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참으로 동정녀에게서 나셨고 ... 우리를 위해서 그 육신이 못 박히셨습니다. ... 그분은 부활하여 그의 성도들과

⁸⁰ Pelikan, *The Emergence of the Catholic Tradition(100-600)*, 187.

⁸¹ Pelikan, *The Emergence of the Catholic Tradition(100-600)*, 174-175, 189.

⁸² Ignatius, “To the Ephesians,” 7:1-2, 89-90; “To the Smyrnaeans,” 1:1-8:1, 112-115; Baker, *An Introduction to the Early History of Christian Doctrine*, 330.

⁸³ Ignatius, “To the Trallians,” 4:1; 6:1-2; 7:2, 99-100.

⁸⁴ Alister McGrath, *Historical Theology: A History of Christian Thought*, 소기천 외 3인 역, 『신학의 역사: 교부시대에서 현대까지 기독교 사상의 흐름』 (경기도:知와 사랑, 2016), 60.

충실한 신자들을 교회라는 한 지체 안에서 영원히 불러모으는 표준을 세우셨습니다. ... 그분의 고난은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가짜는 바로! 그들이입니다.(*Smy* 1:1-2:1)⁸⁵

또 하나 교부들이 활동하던 시대, 성찬은 기독교와 유대교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갈등의 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가현설을 주장하는 영지주의 이단과의 구별점이 된다.⁸⁶ 「에베소 인들에게」 제13장은 성찬식에 참여할 수 없는 영지주의자들을 가리켜 전복될 ‘사탄의 권력’이라고 평한다.⁸⁷ 그리고 「서머나 인들에게」 보내는 서신 제7장에서는 “성찬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이란 표현을 쓴다.⁸⁸ 성찬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승천하신 그리스도, 심판의 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모습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가현설에 따른 영지주의 이단들의 그릇된 교리적 갈등은 온 교회를 흔들고 있었다. 로마의 순교 현장을 향하고 있는 이그나티우스의 입장에서는 풀어야 할 큰 문제 가운데 하나였다. 따라서 그는 폴리갑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이단을 가르치는 자들에 대해 단호할 것과 경기자로서의 모습을 잃지 않도록 특별히 독려하고 있었던 것이다.⁸⁹

2) 교회 및 감독의 권위에 대한 갈등

이그나티우스는 교회가 하나의 모습으로 세워지고, 나가는데 있어서 한 명의 감독을 중심으로 사역이 이뤄질 것을 강조한다. 교회 감독에 대한 이그나티우스의 바램은 일곱 서신 모두에 등장하고 있다. 안디옥

⁸⁵ Ignatius, “To the Smyrnaeans,” 1:1-2:1, 112-113.

⁸⁶ Frank, *Lehrbuch der Geschichte der Alten Kirche*, 151.

⁸⁷ Ignatius, “To the Ephesians,” 13:1, 91.

⁸⁸ Ignatius, “To the Smyrnaeans,” 7:1, 114.

⁸⁹ Ignatius, “To Polycarp,” 3:1, 118.

교회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는 자신을 가리켜 “데오포로스”로 일곱 서신의 인사말에서 소개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자로서 자신을 변증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감독 직분에 대한 권위를 함께 표현하고 있었다. 「빌라델피아 인들에게」 보낸 서신 제7장에서 이그나티우스는 “감독을 떠나 어떤 일도 하지 말도록” 한다.⁹⁰ 이그나티우스는 자신이 이런 말을 한 것에 대해 “그것은 하나님의 목소리였습니다”라며 권위를 나타낸다. 일곱 서신을 편역했던 시릴 리차드슨은 여기에 대해 이런 각주를 단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예언적 발언의 사례입니다.”⁹¹ 그리고 헨리 베탄슨(Henry Bettenson)은 「빌라델피아 인들에게」 제7장을 편역하면서 ‘예언자 이그나티우스’라는 소제목을 붙인다.⁹²

이그나티우스는 「에베소 인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감독의 권위에 복종할 것을,⁹³ 「마그네시아 인들에게」 보낸 서신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하듯이 감독의 권위를 존중하도록 한다.⁹⁴ 「서머나 인들에게」 보낸 서신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따르셨듯이 감독의 권위를 최고의 권위로 여기고 따르라고 한다.⁹⁵ 이그나티우스가 감독의 권위를 이와 같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던 이유는 교회의 권위에 따른 갈등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로마 정부로부터 가해져 오는 핍박과 이단들로 인한 교회의 갈등이 교회의 권위와 함께 감독직으로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로마 정부로부터 가해져 오는 핍박은 교회의 권위를 짓밟고, 감독의 권위를 무색시켜 버린다. 그리고 유대주의자들과 영지주의자들이 이루고 있는 분파는 교회의 권위를 퇴색시키

⁹⁰ Ignatius, “To the Philadelphians,” 7:2, 110.

⁹¹ Ignatius, “To the Philadelphians,” 7:2, 110; 각주 99 재인용.

⁹² Bettenson, ed., *The Early Christian Fathers*, 47-48.

⁹³ Ignatius, “To the Ephesians,” 2:2, 88.

⁹⁴ Ignatius, “To the Magnesians,” 3:1, 95.

⁹⁵ Ignatius, “To the Smyrnaeans,” 8:1, 115.

며, 감독의 권위를 격감시키고 있었다.⁹⁶

한편, 이그나티우스의 로마 압송 과정을 보면 그는 안디옥을 끼고 있는 실루기아에서 지중해를 통해 로마로 가는 직선 코스로 압송되지 않는다. 안디옥에서 육로로 길리기아, 라오디게아, 빌라델피아, 서머나와 드로아를 거쳐 해로로 네압볼리에 이르게 된다.⁹⁷ 소아시아를 향한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 때 사용되었던 코스였다. 그리고 빌립보와 두레스와 브룬디시움을 거쳐 로마에 도착한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압송되었을 당시 이용했던 지중해의 직선 코스를 사용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소아시아의 주요 교회들로 하여금 이그나티우스가 압송당하는 이유를 공개적으로 알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내포하고 있었다. 로마 정부의 정책과 황제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교회와 감독의 권위에 대해 경고하고 있었다. 당시 이그나티우스가 ‘열 마리 표범’에 끌려가는 공포 가운데 압송이 이뤄졌다는 것은 이를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다.⁹⁸ 그리고 이어지는 이단들의 분파적 행위는 교회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치명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그나티우스는 「에베소 인들에게」 보낸 서신 제5장에서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교리를 피력한다.⁹⁹ 이것은 교회에 대해 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이단의 모든 세력들을 향해 교회는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있다는 것을 밝히는 대목이었다. 유대주의의 율법적 구원론과¹⁰⁰ 영지주의의 구원론에 대해 「트랄레스 인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는 참된 생명을 소유할

⁹⁶ MacCulloch, *A History of Christianity*, 214.

⁹⁷ Richardson, ed., *Early Christian Father*, 75.

⁹⁸ Ignatius, “To the Romans,” 5:1, 104.

⁹⁹ Ignatius, “To the Ephesians,” 5:2, 89.

¹⁰⁰ “유대주의적 기독교는 율법도 지키고, 그 테두리 안에서 그리스도도 믿고자 한 것이다. ... 바울의 관점, 즉 메시아의 오심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1세기의 유대주의는 비록 율법을 언약으로 파악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은혜와 율법의 공로를 혼동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라고 김영환은 논한다. 김영환, “현대판 유대주의 기독교의 구원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 종교개혁적 구원론의 관점에서,” 『한국개혁신학』 28 (2010): 15-16.

수 없다”며 교회의 권위를 분명하게 한다.¹⁰¹ 이런 이그나티우스는 감독의 권위를 말할 때, 그 권위를 교회의 권위와 연결하여 말한다. 「서머나 인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보편 교회가 있듯이 감독이 없이는 어떤 세례와 애찬도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¹⁰²라고 분명히 한다. 특히 영지주의자들이 자신들의 견해를 앞세우며 전통에 호소할 때, 이그나티우스는 감독의 권위로 이들에게 맞섰다.¹⁰³ 따라서 감독의 권위에 대한 위협과 갈등은 곧 교회의 권위에 대한 위협과 갈등으로 그 모습이 나타났다.

3) 교회 일치에 대한 갈등

베드로에 이어 로마의 세 번째 감독이었던 클레멘스는 이그나티우스와 동시대 인물이었다. 사도들의 뒤를 이은 교부들의 문헌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은 클레멘스가 기록한 「클레멘스 서신」으로서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관련되어 있다.¹⁰⁴ 로마의 감독이었던 클레멘스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 지도하고, 관여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관점으로 보면 교회 내정에 대한 간섭이었다.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교부 폴리갑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폴리갑은 「빌립보 인들에게」 서신을 보낸다. 그 서신은 빌립보 교회가 조언을 구한 목회적 차원과 이단에 관한 문제의 답장이었다.¹⁰⁵ 답변에는 베드로전서를 비롯한 사도들과 두 교부인 클레멘스와 이그나티우스의 서신이 함께 사용된다. 특히 서신에 대한 답변에는 고린도 교회의 분열에 따른 지도를 펼쳤던 「클레멘스의 제1서신」이 주류를 이룬다.¹⁰⁶ 이와 같이 교부들이 자신이 섬기고 있는 교회가

¹⁰¹ Ignatius, “To the Trallians,” 9:2, 100.

¹⁰² Ignatius, “To the Smyrnaeans,” 8:1-2, 115.

¹⁰³ Placher, *A History of Christian Theology: An Introduction*, 49.

¹⁰⁴ Ritter, *Kirchen-und Theologiegeschichte in Quellen*, 49; Richardson, ed., *Early Christian Father*, 34; Hamman, *How to Read the Church Fathers*, 7.

¹⁰⁵ Richardson, ed., *Early Christian Fathers*, 122-123.

¹⁰⁶ Richardson, ed., *Early Christian Fathers*, 125.

아닌 다른 교회의 문제에 대해 관여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교회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교회라는 개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그나티우스가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여섯 교회와 서머나 감독인 폴리갑에게 목회적 차원에서 서신을 보낼 수 있었던 것 또한 이런 맥락과 연결된다.

교회의 일치에 대해 누구보다 민감했던 이그나티우스는 ‘보편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리스도를 향해 교회가 일치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한다.¹⁰⁷ 여섯 교회를 향해 기록한 서신은 타이틀에 기록된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서신을 대중성을 가지고 기록한다. 교부학자인 H.R. 드롭너(H.R. Drobner)에 따르면 사도시대 이후, 대략적으로 90년대부터 160년의 시기에 기록된 서신들은 대부분 모든 공동체에 공개적으로 낭독될 것을 전제로 하고 기록되었다.¹⁰⁸ 교회 공동체를 하나라는 일치적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그나티우스가 각 교회별로 보낸 서신 또한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보편교회’ 속에는 교회의 일치를 외치는 이그나티우스의 신학적 사상이 새겨져 있었다.¹⁰⁹

교부시대의 특징은 자극적이고 창의적인 접근을 이루기보다 다수의 현안을 밝히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¹¹⁰ 이런 측면에서 교부들은 전통적인 신앙에 대한 해석지라기보다 사도들의 전통 신앙을 지키는 증인들이었다.¹¹¹ 한 분 하나님, 한 분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된 교회를 수호하고 증거하는 것이었다. 속사도 교부들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고, 교회가 각각의 몸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측면에서 일치된 교회를 지켜내는 사명자들이었다. 교회의 일치는 이그나티우스의 사변

¹⁰⁷ Ignatius, “To the Smyrnaeans,” 8:2, 115.

¹⁰⁸ Drobner, *The Fathers of The Church*, 116.

¹⁰⁹ Hamman, *How to Read the Church Fathers*, 7, 9.

¹¹⁰ McGrath, *Historical Theology*, 44-45.

¹¹¹ Kelly, *Early Christian Doctrines*, 90.

적 개념이 아니었다. 이것은 2세기 기독교의 존망을 가를 수 있는 중요한 문제였다.¹¹² 이그나티우스의 일곱 서신은 교회를 공격하는 로마 정부와 유대교, 그리고 내부에 도사리고 있는 유대주의 이단과 영지주의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켜내는 일치를 강조하고 있다. 「마그네시아 인들에게」, 「트랄레스 인들에게」, 「빌라델피아 인들에게」 보낸 서신의 마지막 인사말에서 자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과 함께, 교회로 하여금 하나가 되어 갈등 속에 빠지지 않을 것을 당부하고 있다.¹¹³

3. 순교 신학과 관련한 갈등

아달베르 G. 함만에 따르면 이그나티우스는 이교 집안 출신으로서 철학자들 밑에서 수학하였다. 특히 그는 스토아학파의 ‘디아트리바(diatribе-혹평논법)’를 잘 알고 있었다.¹¹⁴ 당시 교육을 받은 지적인 사람들의 사상은 어떤 한 가지 사상을 내포하고 있기보다 ‘플라톤화된 스토아 사상’, ‘스토아화된 플라톤 사상’의 모습들을 하고 있었다.¹¹⁵ 특히 자신에게 다가온 것이 ‘운명’이라면 이것을 품위 있게 받아들이기를 구하는 ‘스토아 사상’은 ‘인내’를 요구하고 있었다.¹¹⁶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그나티우스의 ‘순교 신학’은 스토아적 사상과 무관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그나티우스에게 결정적으로 순교의 길을 견도록 영향을 끼친 것은 플라톤 사상과 스토아 사상이 아닌 사도들의

¹¹² Cyril C. Richardson, “The Church in Ignatius of Antioch,” in *The Journal of Religion* 17 (1937): 429-430.

¹¹³ Ignatius, “To the Magnesians,” 15:1, 97; “To the Trallians,” 13:2, 101; “To the Philadelphians,” 11:2, 111.

¹¹⁴ Hamman, *How to Read the Church Fathers*, 7; Kobusch, *Christliche Philosophie*, 89-90, 169-170.

¹¹⁵ Kelly, *Early Christian Doctrines*, 29-36.

¹¹⁶ Dassmann, *Kirchengeschichte I*, 141.

고백이었다. 이런 이그나티우스의 순교는 성찬의 특징을 지닌다.¹¹⁷ 그런가 하면 순교와 관련한 이그나티우스의 견해는 성찬을 논리적인 측면이 아닌 신앙적인 측면에서 교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¹¹⁸ 「로마 인들에게」 보낸 서신 제4장에서 모든 교회로 하여금 자신의 순교는 로마 정부로부터 가해지는 죽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죽는 것임”을 강조한다. 그리고 자신의 몸이 그리스도를 위한 빵 덩어리가 되길 원한다.

나는 모든 교회들에게 서신을 쓰면서 그들 모두에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자발적으로 죽는 것임을 깨달아줄 것을 요청합니다. ... 나를 야수들을 위한 먹이가 되게 하십시오.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밑이니 야수들의 이빨에 갈려져 그리스도를 위한 순수한 떡 덩어리가 될 것입니다.(*Rom 4:1*)¹¹⁹

이그나티우스의 순교 신학은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길’이었으며, ‘제자도’였다. 그러나 영지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몸의 희생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긴다. 그리고 순교 자체를 방종으로 여기며 반대한다.¹²⁰ 이그나티우스의 순교 신학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1945년 ‘나그 함마디’에서 발견된 초기 영지주의자들과 관련된 문서 「진리의 증언」(*The Testimony of Truth*)에는 순교하는 자들을 가리켜 “바보 같은 사람들”이라고 조소하는 글이 담겨져 있다.¹²¹ 그러나 순교자들의 관점에서 순교는 인간의 죄로 인해 죽음이 불러오는 고통과 공포의 마지막 순간이 아니었다. 순교는 죄로 인한

¹¹⁷ Drobner, *The Fathers of The Church*, 122.

¹¹⁸ Cyril C. Richardson, “The Church in Ignatius of Antioch,” 434.

¹¹⁹ Ignatius, “To the Romans,” 4:1, 104.

¹²⁰ MacCulloch, *A History of Christianity*, 214-215.

¹²¹ Elaine Pagels and Karen L. King, *Reading Judas: the Gospel of Judas and the Shaping of Christianity* (New York: Viking Press, 2007), 71-72.

‘정당한 값의 죽음’이 아니라 의를 따르다가 당하는 ‘불의한 죽음’이었다.¹²² 그러므로 그 길은 ‘영광의 길’이었고, ‘그리스도인의 길’이었다. 이런 순교를 ‘내적인 기쁨’과 ‘희망’으로 받아들였던 것이 교부들의 모습이였다.¹²³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은 사실을 가현적으로 볼 뿐만 아니라 순교를 조롱하였던 영지주의자들에 대해 이그나티우스는 「트랄레스 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을 통해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도록 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이었고, 마리아에 의해 참으로 태어나셨던 것, 먹고, 마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박해를 받으셨으며, 하늘과 땅, 그리고 지하 세계가 보는 앞에서 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목살하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Tral* 9:1)¹²⁴

순교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영지주의자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두 가지로 해석한다. 하나는 도망쳐야 할 장소였으며, 또 다른 하나는 무시되어야 할 장소였다.¹²⁵ 교부들은 신앙과 교리가 지성에 따르기보다 의지적인 것에 강조점을 둔다.¹²⁶ 이그나티우스가 순교 신학을 따르는 것은 지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도적 길’을 따르는 의지적 결단이었다.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의지를 수반하는 신앙의 결단이었다. 이와 같이 속사도 교부로서 그리스도를 위한 순교를 신앙으로 받아들였던 이그나티우스를 비롯한 교회는 본질적으로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영지주의 이단들과 더욱 깊은 갈등의 골을 형성하게 된다.¹²⁷

122 니콜라오스 바실리아디스, 『죽음의 신비』, 박용범 역 (서울: 정교회출판사, 2010), 309-310.

123 바실리아디스, 『죽음의 신비』, 270-271.

124 Ignatius, “To the Trallians,” 9:1, 100.

125 Placher, *A History of Christian Theology*, 47.

126 Kobusch, *Christliche Philosophie*, 55.

127 MacCulloch, *A History of Christianity*, 205.

IV. 갈등의 해결을 위해 일곱서신이 제시하고 있는 세 가지 신학적 관점

1. 교회론과 관련된 네 가지 속성론

교부들의 문헌을 살펴보면 니케아 신경(A.D. 325) 이전의 신학은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 곧 그리스도론이 큰 바탕을 이룬다. 이런 가운데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고난과 핍박, 그리고 거룩한 삶은 신앙의 근본을 이루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 여기에 교회가 그 중심에 선다. 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에 이르게 된 곳이다.¹²⁸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충만, 그리고 베드로의 ‘회개의 복음’은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난 중요한 사건들이었다. 이그나티우스는 갈등에 따른 문제 앞에 교회론과 관련된 네 가지의 속성을 제시한다. 첫 번째는 ‘하나인 교회의 제사를 통해 갈등의 실마리를 푼다. 이그나티우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교회와 하나의 통일된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를 일치시킨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따른 기독교론을 자신의 중심 신학으로 삼았던 이그나티우스는 ‘하나의 교회론’으로 갈등에 대한 답을 준다.¹²⁹ 「에베소인들에게」 보낸 서신에 의하면 교회와 그리스도는 별도가 아니라 밀착된 관계에 있다.¹³⁰ 사도들에 의해 세워졌고, 가르침 받은 모든 교회는 언제나 하나의 교회라는 개념을 가지게 한다.¹³¹ 이때 하나에 대한 갈등의 문제는 그리스도라는 관점에서 해결된다.

¹²⁸ 이윤석, “그리스도의 충만과 성화: 존 머레이의 주장을 중심으로,” 『한국개혁신학』 55 (2017): 286.

¹²⁹ Kelly, *Early Christian Doctrines*, 92-96; Schaff,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Vol. II*, 659.

¹³⁰ Ignatius, “To the Ephesians,” 5:1, 89.

¹³¹ David K. Bernard, *A History of Christian Doctrine, Vol 1* (Hazelwood: Word Aflame Press, 1995), 187; Ernst H. Klotzsche, *The History of Christian Doctrine*, 강정진 역, 『기독교 교리사』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2), 50-51.

두 번째는 ‘거룩한 교회’이다. 하나님의 교회가 지니고 있는 가장 뚜렷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거룩이다. 이단과 죄악된 세속이 불러오는 갈등의 문제를 거룩으로 분리시킨다. 거룩은 이단이나 세속의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물이 아니다. 거룩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선물인 거룩성은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구성원들의 속성이어야 했다.¹³² 교부들의 권위 또한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라는 입증에 뒤따라야만 했다.¹³³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구원의 장소였으며, 하나님의 능력이 존재하는 거룩한 장소였다.¹³⁴ 이그나티우스의 일곱 서신 가운데 교회가 “거룩하다”라고 명백히 불리는 것은 「트랄레스 인들에게」 보낸 서신의 인사말에서 한 번 나타난다.¹³⁵ 그러나 이그나티우스는 ‘거룩한 교회’를 이단들과의 구별, 세속으로부터 구별에서 간접적으로 이를 설명하고 있었다.

세 번째는 ‘보편적 교회’이다. 「서머나 인들에게」 보낸 서신의 제8장에서 ‘보편교회(Καθολική Εκκλησία)’라는 단어를 최초로 사용한다.¹³⁶ 그러나 교회에 대해 ‘보편’이라는 단어를 적용시킨 것은 이그나티우스의 독단적인 신학의 발단이 아니었다. 이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른 것이었다.¹³⁷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랐던 이그나티우스가 교회라고 말할 때, 그 교회는 머리가 되는 그리스도께로 연결된 몸이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교회를 ‘보편성’으로 강조했던 것이다.¹³⁸ 이그나티우스는 교회의 ‘보편성’으로 이단 또는 세속에 대해 측량의 기준과 중심을 제공한다. 그리고 교회의 보편성으로

¹³² Pelikan, *The Emergence of the Catholic Tradition(100-600)*, 157.

¹³³ P. Bernhard Schmid, *Grundlinien der Patrologie*, 정기환 역, 『교부학 개론』 (서울: 도서출판 콘트롤디아사, 2003), 24-26.

¹³⁴ Frank, *Lehrbuch der Geschichte der Alten Kirche*, 177.

¹³⁵ Ignatius, “To the Trallians,” 98.

¹³⁶ Ignatius, “To the Smyrnaeans,” 8:2, 115; Bernard, *A History of Christian Doctrine*, Vol 1, 188.

¹³⁷ Genderen & Velema, *Beknopte Gereformeerde Dogmatiek*, 1172-1173.

¹³⁸ Kelly, *Early Christian Doctrines*, 189-193.

갈등에 따른 문제를 해결한다. 루이스 벌코프(Louis Berkhof)에 따르면 주후 2세기 이그나티우스로부터 제시되었던 ‘보편교회’는 이단의 출현으로 인한 갈등에 대해 ‘사도들의 참된 전승’을 소유한 외적인 기관으로 이해되었다. 그리고 지역교회는 ‘보편교회’의 일부로 인식되었으며, ‘보편교회’ 전체에 복종하는 지역교회는 ‘참된교회’로 여김을 받았다.¹³⁹

네 번째는 ‘사도적 교회’이다. 교회의 정체성은 사도적 선포에 의해 결정된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랐던 사도들의 가르침을 계승하는 교회를 가리켜 ‘사도적 교회’라고 한다. 유대주의 이단들이 율법적 구원론을 주장한 것은 교회를 유대교의 분파 또는 유대교의 발전적 관점에서 바라봤기 때문이다. 이그나티우스는 ‘사도적 교회’로서 교회의 특징을 제시하면서 교회는 유대교의 발달적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별도의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역사를 통해 존재하게 되었으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형성하게 되었다.¹⁴⁰ 이그나티우스는 이를 통해 유대주의 이단들로 인한 교회의 근원적 갈등에 답을 주고 있었다.¹⁴¹

교부학자인 카를 수소 프랑크(Karl Suso Frank)는 교회의 시작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고 자신의 저서 「고대 교회사 개론」에서 밝힌다.¹⁴² 교부들은 이런 사도들의 증인이었다. 「마그네시아 인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이그나티우스는 “기독교가 유대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가 기독교를 믿었다”라며 사도들에 의해 세워진 교회는 유대교와 완전히 별개라는 사실을 강조하

¹³⁹ Berkhof, *The History of Christian Doctrines*, 176.

¹⁴⁰ 우병훈, “참된 교회의 감춰져 있음—루터 교회론의 한 측면,” 『한국개혁신학』 55 (2017):

¹⁴¹ Klotsche, *The History of Christian Doctrines*, 51.

¹⁴² Frank, *Lehrbuch der Geschichte der Alten Kirche*, 124.

며, 갈등에 답을 준다.¹⁴³ 그리고 교회는 유대교의 ‘상한 누룩’이 될 수 없으며,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명령에 따라 굳게 세워져야 한다는 완전한 구별점을 제시한다.¹⁴⁴ 이것을 「마그네시아 인들에게」 보낸 서신 제10장과 제13장에서 밝히고 있었다.¹⁴⁵

2. 감독 중심론

이그나티우스가 살아가던 속사도 교부들의 시대는 ‘전통’과 ‘일치’, ‘거룩한 삶’과 ‘순교에 대한 열정’이 어느 시대보다 뜨거웠다. 그러나 지금처럼 교리에 대해 확정적인 모습을 취하지 못했던 시기였다.¹⁴⁶ 따라서 그리스도의 ‘인성’을 거부하는 가현설주의자들에 의해 교회는 분파에 따른 갈등 속에 빠진다. 분파는 신앙과 교리에 대한 갈등의 요소를 만든다. 여기에 대해 이그나티우스는 감독을 교회의 지도적인 위치에 놓고 문제의 해법을 찾는다.¹⁴⁷ 거룩성이 교회 속에서 발견되어 진다면 교회의 통일성은 감독에게서 발견된다.¹⁴⁸ 감독 안에서 교회의 일치를 이루는 것은 「에베소 인들에게」, 「마그네시아 인들에게」, 「트라레스 인들에게」, 「빌라델피아 인들에게」, 「서머나 인들에게」, 「폴리갑에게」 보낸 서신의 곳곳에서 발견된다. 이그나티우스는 감독을 진정한 일치의 열쇠로 여긴다.¹⁴⁹ 일곱 서신 가운데 순교에 초점이 맞추어져

¹⁴³ Ignatius, “To the Magnesians,” 10:3, 97.

¹⁴⁴ Todd Klutz, “Paul and the development of gentile Christianity,” in *The Early Christian World*, ed. Philip F. Esler (Routledge, 2002), 168-170.

¹⁴⁵ Ignatius, “To the Magnesians,” 10:2; 13:1, 97.

¹⁴⁶ 초대 교부들의 신학을 통전적으로 그 내용들이 다루어지는 경향들이 있었다. 그 이유는 신앙이 신앙의 큰 테두리 안에서 다뤄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조윤호, “요한 크리소스톰의 사상에 나타나는 창조회복에 따른 그리스도의 직분론 이해,” 『개혁논총』 49 (2019): 178, 184.

¹⁴⁷ Baker, *An Introduction to the Early History of Christian Doctrine*, 357-358; Bettenson, ed., *The Early Christian Fathers*, 4-5; Kelly, *Early Christian Doctrines*, 197-199.

¹⁴⁸ *The Emergence of the Catholic Tradition*, 159.

¹⁴⁹ Klotsche, *The History of Christian Doctrine*, 51.

있는 「로마 인들에게」 보낸 서신을 제외한 여섯 가지 서신은 이런 문제를 동일하게 다루고 있다.

교회사가인 윌리스턴 워커(Williston Walker)에 따르면 최초의 이방인 교회에는 완전한 제도에 따른 직분자들이 존재하지 않았다. 교회 사역에 따른 직분은 2세기 중반에 그 유형들이 드러난다. 이런 가운데 어떤 종류의 직임이 중요한지에 관한 문제를 두고 교회들은 갈등에 놓여진다. 이 기회를 이단들은 놓치지 않고 교회의 조직에 관여한다.¹⁵⁰ 여기에 대해 이그나티우스는 감독직을 사도들의 전통을 이어가는 중심으로 여긴다. 감독 중심의 위계 제도가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에 의해 분명해진다.¹⁵¹ 특히 감독 중심과 관련한 그의 서신의 첫 출발은 가장 긴 21장의 본문을 가진 「에베소 인들에게」라는 서신에서 시작된다. 본 서신의 제1장에서는 순교의 길을 가고 있는 자신을 격려하기 위해 사람을 파송한 에베소 교회에 먼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그리고 자신들이 파송한 오네시모를 감독으로 가진 에베소 교회가 복되다는 것을 증거한다.¹⁵² 제1장과 맥을 이어 제2장과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에서는 감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제시하면서 감독 중심론을 펼쳐나간다. 여기서 이그나티우스는 그리스도께 하듯이 감독에게 순종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과 일치룰 이루도록 한다. 신앙과 교리문제로 갈등을 빚어내고 있는 분파주의자들로부터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 하나의 감독과 장로회를 중심에 두게 한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감독의 지도에 의해 일치와 연합을 이루며 신앙과 교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¹⁵³

¹⁵⁰ Walker, *A History of Christian Church*, 44-48.

¹⁵¹ Schaff,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Vol. II*, 660

¹⁵² Ignatius, "To the Ephesians," 1:3, 88.

¹⁵³ Bernard, *A History of Christian Doctrine, Vol 1*, 28.

...오네시모, 부르로, 유폴로와 프론토니 ... 그들 안에서 나는 여러분들을 보았고, 여러분들 모두를 사랑했습니다.(Ep. 2:1) ... 그러므로 여러분이 연합하고 순종하고 감독과 장로회에 복종하면 진정한 성인들이 될 것입니다.(Ep. 2:2) ... 세계 모든 곳에서 임명된 감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비추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반영합니다.(Ep. 3:2) 그러므로 반드시 여러분은 감독과 뜻을 맞추어 행동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장로회는 실제 하프의 현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감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Ep. 4:1) ... 그러므로 여러분이 영원토록 하나님에 속한 자가 되길 원하신다면 흠잡을 데 없는 일치 가운데 머물 필요가 있습니다.(Ep. 4:2) ... 그러므로 감독에 대한 저항을 진심으로 피하여 하나님께 복종하도록 합시다.(Ep. 5:3) ...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감독을 주님처럼 간주해야 합니다.(Ep. 6:1) ... 참으로 오네시모는 여러분이 진리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과 분파주의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한 것을 매우 칭찬하였습니다.(Ep. 6:2)¹⁵⁴

감독 제도를 교회 공동체의 중심에 두고 있는 이그나티우스는 감독을 다양한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독에 대해 단수인 ‘한 명’을 기록하면서 단일 감독 체계를 강력하게 추구하고 있었다고 카를 수소 프랑크는 「고대 교회사 개론」에서 밝힌다.¹⁵⁵ 「마그네시아 인들에게」 제3장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존중하듯이 감독의 권위를 인정하며, 순종할 것을 요구한다. 「트랄레스 인들에게」 제3장은 감독을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자로 칭한다. 「빌라델피아 인들에게」 제1장에서는 감독의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덕분으로 이뤄진 사역으로 묘사한다. 그리고 「서머나 인들에게」 제8장에서는 감독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보편교회’의 모습이라고 강조한다. 여기에서 한 명의 감독을 두는 것과 그를 돕는 규정을 이그나티우스가 처음으로 논하며

¹⁵⁴ Ignatius, “To the Ephesians,” 2:1-6:2, 88-89.

¹⁵⁵ Frank, *Lehrbuch der Geschichte der Alten Kirche*, 227, 370.

일치를 주장한다. 그는 감독을 한 분이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여긴다.¹⁵⁶ 그리고 성찬의 집례를 감독직에 두면서 이단들로 인한 갈등에 종지부를 찍는다. 그런가 하면 감독직에서 교회의 일치에 따른 감독론을 전개한다.¹⁵⁷

해약의 근원인 분파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하셨듯이 감독을 따라야 합니다. ... 어느 누구도 감독의 승인없이 교회와 관련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찬식은 감독이나 그가 승인한 사람에게 의해 집행되는 것을 유효한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보편(가톨릭) 교회가 있는 것처럼 감독이 있는 곳에 회중이 모이게 해야 합니다. 감독이 없는 곳에는 애찬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가 승인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은 안전하고 유효할 것입니다.(*Smy* 8:1-2)¹⁵⁸

이그나티우스는 「폴리갑에게」 보내는 개인 서신에서 감독을 ‘하나님의 경기자’로 묘사하고 있다.¹⁵⁹ 감독에 관한 이그나티우스의 생각과 애정은 사도적 전통을 이어가는 교회를 지키는 측면에서 절대적이었다. 그는 폴리갑에게 감독의 의무에 대해 주의를 주면서 감독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박해에도 굴하지 말고 갈등을 이겨내도록 독려한다.¹⁶⁰ 이그나티우스가 주장하는 감독 중심주의는 감독의 절대 권력화를 꾀하는 것이 아니었다. 감독을 통해 갈등 가운데 있는 교회를 지켜내고, 사도적 교회로서 일치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이다.¹⁶¹ 해리 O. 마이어

¹⁵⁶ Dassmann, *kirchengeschichte I*, 259-260.

¹⁵⁷ Franzen, *Kleine Kirchengeschichte*, 36.

¹⁵⁸ Ignatius, “To the Smyrnaeans,” 8:1-2, 115.

¹⁵⁹ Ignatius, “To Polycarp,” 1:2-3; 2:3; 3:1, 117-118;

¹⁶⁰ Franzen, *Kleine Kirchengeschichte*, 37.

¹⁶¹ Richardson, ed., *Early Christian Father*, 76.

(Harry O. Maier)는 「신학저널」(*The Journal of Theological Studies*), Vol. 55에서 이그나티우스의 「에베소 인들에게」 보낸 서신 제6장 1절을 중심으로 감독의 침묵을 다룬다. 여기서 그는 이그나티우스가 감독의 침묵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에 주목한다.¹⁶² 대표자로서 감독의 침묵은 묵음(默音) 속에서 보는 이로 하여금 많은 일들을 해낸다. 말로 표현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또 다른 갈등을 감독이라는 위치에서 침묵으로 해결하고 있다. 이그나티우스에게 있어서 감독은 교회 공동체의 상징이었으며, 사도적 전통을 전달하는 자였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고자 하는 이단에 대한 갈등의 보호막과 같은 존재였으며, 교회 공동체에 대한 교리의 대표자였다.¹⁶³

3.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론

A.D. 325년 니케아 공의회 이후 교리가 체계적으로 세워지기 전이었다. 속사도 교부들이 중심이 되었던 2세기에는 그리스도가 이룬 화해 사역이 중요하게 다뤄진다. 신학적으로 구별 짓는다면 기독교는 중심을 이루며, 그리스도가 이룬 제사장 직분의 사역이 그 터 위에 올려진다.¹⁶⁴ 이런 바탕 위에 가르침이 주어지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역들이 전개된다. 이그나티우스의 가르침은 사도들과 일치하는 것을 이상(理想)으로 내어 놓는 것이었다. 교리가 체계화되지 못했을 때인 속사도 교부시대의 권위는 ‘사도들의 가르침’이 근거였고, 신뢰였다. 유세비우스의 증언에 따르면 이그나티우스는 베드로의 후계자였으며, 안디옥 교회의 두 번째 감독이었다.¹⁶⁵ 그리고 서머나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이 「빌립보 인들에

¹⁶² Harry O. Maier, “The Politics of the Silent Bishop: Silence and Persuasion in Ignatius of Antioch,” *The Journal of Theological Studies* 55 (2004): 503-509.

¹⁶³ Bengt Häggglund, *History of Theology*, 박희석 역, 『신학사』 (서울: 성광문화사, 2014), 27.

¹⁶⁴ Kelly, *Early Christian Doctrines*, 92-93; 펠리칸, 『고대교회 교리사』.

게」 보낸 서신 제9장에 의하면 이그나티우스는 로마에서 사도들의 길을 따라 순교하게 된다. 그 죽음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었다. 폴리갑이 밝히고 있듯이 이그나티우스의 사역과 그의 마지막 모습은 고난 가운데 놓여 있는 빌립보 인들로 하여금 갈등을 이겨내고 신앙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

축복받은 이그나티우스, 조시무스, 루푸스 ... 이들은 모두 헛되이 달음질한 것이 아니라 신앙과 의로움 안에서 달렸으며, 그들이 주님의 고난에 참여했다는 것과 주님과 함께 마땅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 그들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았기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분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Phil.* 9:1-2).¹⁶⁶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그나티우스의 견해는 그리스도를 닮아야 한다는 것에 있다. 십자가의 길은 혼자가 되고, 고독한 길이 아니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을 나타내는 길이였다. 이그나티우스의 신학을 사도적 기독교론이며,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는 신학으로 논했던 폴 A. 하르톡(Paul A. Hartog)은 임박한 순교에 직면했던 이그나티우스의 고통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자로서 그분과 함께 하는 고통이라고 하였다.¹⁶⁷ 교부들이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고난과 죽음을 통한 구원이었다.¹⁶⁸ 「에베소 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그는 육신을 따라 행동하는 자, 하나님의 신앙을 타락하도록 가르치는 자가 갈 곳은 영원한 불못이라며 그리스도인의 참된 신앙의 길을 걷는

¹⁶⁵ Pamphilus, *The Ecclesiastical History of Eusebius Pamphilus*, 109.

¹⁶⁶ Polycarp, “To the Philippians,” in *Early Christian Fathers*, ed. Cyril. C. Richardson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6), 135.

¹⁶⁷ Paul A. Hartog, “Imitatio Christi and Imitatio Dei: High Christology and Ignatius of antioch’s Ethics,” *Perichoresis* 17/1 (2019): 3, 6-8, 16.

¹⁶⁸ Berkhof, *The History of Christian Doctrines*, 26.

것이 참으로 복되다는 것을 사실적으로 표현한다.¹⁶⁹ 따라서 「트랄레스 인들에게」 보내는 서신 제9장에서 “그리스도에 대해 다르게 말하는 것에 귀를 막으십시오”라고 증거했던 것이다.¹⁷⁰ 이그나티우스는 서신에서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고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대한 기독교론의 전개와 함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부활 신앙을 그리스도인의 신앙으로 제시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교리에 대해 마태와 누기를 제외하고 속사도 교부들 가운데 유일하게¹⁷¹ 이 사실을 「에베소 인들에게」, 「서머나 인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증거한다. 그는 그리스도의 참된 인성을 확실하게 하면서 영지주의자들과 같은 이단들이 만들어 내고 있는 신앙의 갈등에 대해 일침을 가했던 것이다.

주님의 죽으심과 마찬가지로 마리아가 동정녀이었던 것과 그녀가 아이를 낳은 것은 세상의 군주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세 가지 비밀을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이 그 시대에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 무지는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이라는 새로운 것을 일으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람의 모습으로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Ep.* 9:1-3)¹⁷² ... 예수 그리스도를 칭송합니다. ...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 ... 동정녀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따라 ...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분은 그분의 부활에 의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관계없이 교회의 한 지체 안에서 영원히 불러모으기 위해 충실한 표준을 세우셨습니다. (*Smy* 1:1-2)¹⁷³

이그나티우스의 구원론과 관련한 참신앙의 모습은 “새 생명과 불멸성

¹⁶⁹ Ignatius, “To the Ephesians,” 16:1-2, 92.

¹⁷⁰ Ignatius, “To the Trallians,” 9:1-2, 99-100.

¹⁷¹ Pelikan, *The Emergence of the Catholic Tradition(100-600)*, 287.

¹⁷² Ignatius, “To the Ephesians,” 19:1-3, 93.

¹⁷³ Ignatius, “To the Smyrnaeans,” 9:1-2, 113.

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해주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었다”라고 J.N.D. 켈리는 속사도 교부시대를 통해 밝히고 있다.¹⁷⁴ J.N.D. 켈리에 따르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길을 걸어갔던 이그나티우스에게는 4가지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의 신앙의 근본을 이룬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죽음’이었으며,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승천’이었으며,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심판에 따른 재림’이었다.¹⁷⁵ 이를 통해 이그나티우스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갈등을 치료하시는 의사로 제시하고 있다.¹⁷⁶ 특히 십자가는 신앙과 현재의 상황에 따른 갈등을 해결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를 높여주는 기증기와도 같은 것이었다. 이그나티우스는 ‘에베소 인들’을 향해 자신은 “구원과 영생을 의미하는 십자가를 위해 생명을 내어놓았다”라며 십자가 신앙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있다.¹⁷⁷ ‘트라레스 인들’에게는 십자가를 가리켜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으신 가지로서 죽지 않는 열매를 맺을 것”으로 증거한다.¹⁷⁸ 신앙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에 대한 갈등은 2세기에 들어와서 ‘순교자’를 공경하는 것으로 그 모습이 나타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죽음을 나타내는 순교는 순교 신학으로 발전하게 된다.¹⁷⁹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좋아했던 이그나티우스가 제시하고 있는 순교는 고난에 따른 갈등을 모면하는 수단이 아니었다.¹⁸⁰ 갈등을 해결하는 사후의 영예에 대한 약속이었으며, 보장이었다.¹⁸¹

¹⁷⁴ Kelly, *Early Christian Doctrines*, 164.

¹⁷⁵ Kelly, *Early Christian Doctrines*, 88.

¹⁷⁶ Ignatius, “To the Ephesians,” 7:2, 90.

¹⁷⁷ Ignatius, “To the Ephesians,” 9:1; 18:1, 90, 92.

¹⁷⁸ Ignatius, “To the Trallians,” 11:2, 100-101.

¹⁷⁹ Frank, *Lehrbuch der Geschichte der Alten Kirche*, 196.

¹⁸⁰ Bernard, *A History of Christian Doctrine, Vol 1*, 25.

¹⁸¹ Rodney Stark, *The Rise of Christianity: A Sociologist Reconsiders History*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6), 180-184.

V. 결론

교회와 개인을 향한 이그나티우스의 일곱 서신에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처음부터 그는 서신을 대중성을 가지고 기록했다는 점이다. 특정한 지역과 특정한 대상을 상대로 기록했지만 서신의 내용이 담고 있는 의미는 대중성의 색채를 띠고 있었다. 교회에 대한 일치의 관점을 가지고 서신을 썼던 것이다. 이것은 이그나티우스가 있었던 속사도 교부시대의 공통된 특징이기도 했다. 이그나티우스는 당시 교부들이 가지고 있었던 교회에 대한 ‘하나’의 개념을 더욱 발전시킨 ‘그리스도’의 관점을 강력하게 제시한 교부였다. 그의 순교신학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그나티우스는 교회와 감독의 일치를 몸의 지체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머리로서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와 일치를 이룬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그의 신학과 사상은 핍박에 따른 고난과 교리적 갈등, 그리고 세속 가운데 놓여진 교회의 갈등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는 연결점이었다. 「서머나 인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밝힌 ‘보편교회’는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 A.D. 354-430)보다 앞선 교회론의 교리적 제시였다.¹⁸² 그 핵심은 ‘그리스도’였다.

일곱 서신의 인사말에 공통으로 등장했던 ‘데오포로스’는 ‘그리스도’를 변증하고 있었다. 이그나티우스가 일곱 서신에서 ‘그리스도’를 유독 강조하고 있었던 이유는 그의 신앙과 신학의 근거가 ‘그리스도’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에베소 인들에게」 보낸 서신의 제7장에서 드러나고 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갈등을 치료하는 ‘의사’로 여기고 있었던 것이다.¹⁸³ 그리스도의 직분 가운데

¹⁸² Ignatius, “To the Smyrnaeans,” 8:2, 115.

¹⁸³ Ignatius, “To the Ephesians,” 7:2, 90.

고난과 희생, 그리고 헌신을 대변하고 있는 ‘제사장의 직분’을 강조했던 이그나티우스에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십자가와 관련한 ‘순교 신학’과 ‘성찬’이었다. ‘성찬’은 ‘순교 신학’과 ‘감독직’과 연결된다. ‘성찬’은 영지주의 이단과 갈등에 따른 구별점이기도 했다.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사도적 전승을 이어가는 자들로 여기며 교회 가운데 갈등을 일으켰다. 이때 이그나티우스는 감독론으로 여기에 대한 갈등을 봉합한다. 감독은 사도들에게 거슬러 올라가는 보증이었으며, 영지주의자들이 거부하는 성찬의 집례를 행하는 적격자였다.

그는 율법을 앞세운 유대주의 이단과 영지주의 이단이 교회 속에서 일으키고 있는 갈등에 대해 그리스도와 관련된 기독교론을 제시한다. 이그나티우스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중보자의 모습으로 비취낸다. 그리고 부활은 십자가를 따르는 신앙에 대한 갈등의 답이었다. 이런 그리스도를 따르는 순교의 신앙을 통해 본연의 갈등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 교부학자였던 J.N.D. 켈리는 자신의 저서 「초기 기독교 교부들」에서 영지주의가 기독교의 전통을 휩쓰는 선두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속에서 성공하지 못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진정으로 사람이 되었다는 가르침을 흔들림 없이 고수했기 때문입니다.”¹⁸⁴ 여기에 대해 가장 두드러진 예가 이그나티우스에 의해 제시되고 있었다고 J.N.D. 켈리는 증언한다.¹⁸⁵

교리에 따른 이단과의 갈등, 일치룰 이루기 위한 갈등, 로마 정부로부터 가해져 오는 갈등, 이 모든 갈등은 교회와 관련되어 있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이그나티우스는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면서 갈등에 대한 답을 주고 있었다. 특히 「에베소 인들에게」

¹⁸⁴ Kelly, *Early Christian Doctrines*, 142.

¹⁸⁵ Kelly, *Early Christian Doctrines*, 142-143.

보낸 서신 제5장에서 거론되고 있는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는¹⁸⁶ 교리적 제시는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의 본질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었다. 그리고 ‘교회의 속성론’과 ‘감독 중심론’,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론’은 그리스도를 중심에 세워서 펼쳐나갈 갈등에 대한 답이었다. 이그나티우스의 일곱 서신에 나타난 갈등은 넘어지는 자의 표상이 아니었다. 그가 밝히고 있고, 제시하고 있는 갈등의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화시켜 나가야 할 신앙이었고, 신학이었다. 이것을 그는 통전적인 ‘그리스도론’을 통해 제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그나티우스의 갈등에 대한 연구는 이 시대를 다시 한 번 더 조명하게 한다. 이그나티우스가 제시하고 있는 신학과 사상은 갈등을 단순히 봉합하는 방식의 제시가 아니었다. 그는 우리의 신앙과 근본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그리고 상황적인 요소에 대해 타협하여 합의점을 찾을 것이 아니라 진리를 끝까지 추구하며 갈등을 해소해 나가도록 한다. 이 시대 만연해지고 있는 편법적인 신앙과 신학에 대해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 그의 ‘그리스도론’이 교회론과 감독론, 그리고 순교에 따른 ‘신앙론’ 등으로 이어지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 가지 측면의 갈등으로부터 분명한 길을 걷도록 한다. 1) 신앙 절충주의로 야기되는 갈등을 오직 진리의 길만을 바라보며 영적 갈등을 이겨나가도록 길을 밝혀준다. 2) 철학적 사고와 지식을 앞세운 신학에서 오는 갈등을 멈추고 그리스도론의 근본에서 그 모든 신학을 출발하도록 길을 제시하고 있다. 3) 다양한 종교와 타락한 문화로부터 야기되는 갈등, 여기에 더해지는 이단들로 인한 신앙의 갈등을 바른 교리를 통해 극복하도록 길을 가르쳐주고 있다. 갈등의 살마리를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하는 이그나티우스의 신학과 사상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과 신학이 어디로부터 시작해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지 그 답을 주고 있다.

¹⁸⁶ Ignatius, “To the Ephesians”, 5:2, 89.

〈Abstract〉

A Study on The Theology and Ideology of Ignatius
that Sublimated Conflict into Faith
: Centered on The Seven Letters of Ignatius

YounHo Jo

(Senior Pastor, Gerizim Church / Systematic Theology)

The seven letters of Ignatius historically and theologically express the era of conflict. His seven letters begin from the Church of Ephesus to Polycarp, calling himself “Theophoros(Θεοφόρος)”. In his letters was centred on ‘Christology’. The six letters from 「To the Ephesians」 to 「To the Smyrnaeans」 are written for the church. And one letter was a personal letter to 「To Polycarp」. These seven letters are largely composed of three conflicts. The first is related to the church. typical conflicts are doctrinal conflicts related to Jewish and Gnostic heresies and conflicts with the church unity. The second is the conflict related to persecution from the Roman government. The third is a conflict related to Christian faith. Ignatius answers to the conflict by ‘Ecclesiology’, ‘Episcopacy’, and ‘Faith of True Christian’. And at the center of all this was ‘Christ’.

In the days of the early Fathers, when theology was not established, theology was comprehensive covered. Nevertheless, through the seven letters of Ignatius, we can find the theological grounds for “Ecclesiology” and “Episcopacy” and “Faith”. Ignatius

first used the term “The Catholic Church(καθολικὴ ἐκκλησία)” in a letter 「To the Smyrnaeans」 about conflict with heresies. In a letter 「To the Ephesians」 reveals the theological view that ‘Outside the Church there is no Salvation’. He answers the conflict over suffering and fear with ‘faith of Christian’. Ignatius heals conflict through the faith of Christ. Therefore, his study of theology and ideology leads us to look back on what is important. The first is to reflect on the identity of faith and theology. Second, it forces us to find answers to our conflict in Christ.

Keywords: Christ, Conflict, Martyrdom, Heresy, Unity, Church

〈참고문헌〉

- 김영한. “현대판 유대주의 기독교의 구원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 종교개혁적 구원론의 관점에서.” 『한국개혁신학』 28 (2010): 8-34.
- 이윤석. “그리스도의 충만과 성화: 존 머레이의 주장을 중심으로.” 『한국개혁신학』 55 (2017): 276-301.
- 우병훈. “참된 교회의 감춰져 있음: 루터 교회론의 한 측면.” 『한국개혁신학』 55 (2017): 69-110.
- 조윤희. “요한 크리소스톰의 사상에 나타나는 창조회복에 따른 그리스도의 직분론 이해.” 『개혁논총』 49 (2019): 153-195.
- 바실리아디스, 니콜라오스. 『죽음의 신비』. 박용범 역. 서울: 정교회출판사, 2010.
- Bavinck, Herman. *Reformed Dogmatics Vol. 2*.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4.
- Berkhof, Louis. *The History of Christian Doctrines*. London: Banner of Truth, 1991.
- Bernard, David K. *A History of Christian Doctrine. Vol 1*. Hazelwood: Word Aflame Press, 1995.
- Bethune-Baker, James. *An Introduction to the Early History of Christian Doctrine*. Cambridge: Fellow and Dean of Pembroke College, 1903.
- Bettenson, Henry. Ed. *The Early Christian Father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2*. Ed. John McNeill. trans. Ford Lewis Battles.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0.
- Clement of Rome, “Commonly Called Clement's First Letter.” In *Early Christian Fathers*. Ed. Cyril. C. Richardson.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6.
- Colle, Ralph Del. *Christ and the Spirit: Spirit-Christology in Trinitarian*

- Perspectiv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 Dassmann, Ernst. *Kirchengeschichte I*. 하성수 역. 『교회사 I』, 왜관: 분도출판사, 2007.
- Drobner, H. R. *The Fathers of The Church: A Comprehensive Introduction*. 하성수 역. 『교부학』, 왜관: 분도출판사, 2015.
- Frank, Karl Suso. *Lehrbuch der Geschichte der Alten Kirche*. 하성수 역. 『고대 교회사 개론』, 서울: 가톨릭출판사, 2008.
- Franzen, August. *Kleine Kirchengeschichte*. Germany: Verlag Herder, 1965.
- Genderen J. van & Velema, W. H. *Beknopte Gereformeerde Dogmatiek*. 신지철 역. 『개혁교회 교의학』,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8.
- Hägglund, Bengt. *History of Theology*. 박희석 역. 『신학사』, 서울: 성광문화사, 2014.
- Hagner, Donald A. *World Biblical Commentary: Vol. 33a, Matthew 1-13*. Colombia: Word Incorporated, 1993.
- Hamman, Adalbert. *How to Read the Church Fathers*. London: SCM Press LTD, 1993.
- Hartog, Paul A. “Imitatio Christi and Imitatio Dei: High Christology and Ignatius of Antioch’s Ethics.” *Perichoresis* 17/1 (2019): 3-22.
- Ignatius. “To the Ephesians.” In *Early Christian Fathers*. Ed. Cyril. C. Richardson.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6.
- _____. “To the Magnesians.” In *Early Christian Fathers*. Ed. Cyril. C. Richardson.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6.
- _____. “To the Trallians.” In *Early Christian Fathers*. Ed. Cyril. C. Richardson.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6.
- _____. “To the Romans.” In *Early Christian Fathers*. Ed. Cyril. C. Richardson.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6.
- _____. “To the Philadelphians.” In *Early Christian Fathers*. Ed. Cyril. C. Richardson.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6.

- _____. “To the Smyrnaeans.” In *Early Christian Fathers*. Ed. Cyril. C. Richardson.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6.
- _____. “To Polycarp.” In *Early Christian Fathers*. Ed. Cyril. C. Richardson.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6.
- Irenaeus, Bishop of Lyons. “The Refutation and Overthrow of the Knowledge Falsely So Called.” in *Early Christian Fathers*. Ed. Edward Rochie Hardy.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6.
- Kelly, J. N. D. *Early Christian Doctrines*. London: Adam & Charles Black, 1968.
- Klotsche, Emst H. *The History of Christian Doctrine*. 강정진 역. 『기독교 교리사』.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2.
- Klutz, Todd. “Paul and the Development of Gentile Christianity.” In *The Early Christian World*. Ed. Philip F. Esler. Routledge, 2002.
- Kobusch, Theo. *Christliche Philosophie: Entdeckung der Subjektivität*. 김형수 역. 『그리스도교 철학: 주체성의 발견』. 서울: 가톨릭출판사, 2020.
- Lubac, Henri de. *La mystique et l'anthropologie dans le christianisme*. 박진상 역. 『그리스도교 신비사상과 인간』. 화성시: 수원가톨릭대학교 출판부, 2016.
- MacCulloch, Diarmaid. *A History of Christianity: The First Three Thousand Years*. 박창훈 역. 『3천년 기독교 역사 I: 고대사』.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3.
- Maier, Harry O. “The Politics of the silent Bishop: silence and persuasion in Ignatius of Antioch,” *The Journal of Theological Studies* 55 (2004): 503-519.
- McGinn, Bernard. *The Foundations of Mysticism: Origins to the Fifth Century*. 엄성옥 역. 『서방 기독교 신비주의의 역사(1)』. 서울: 은성출판사, 2015.

- McGrath, Alister. *Historical Theology: A History of Christian Thought*. 소기천 외 3인 역. 『신학의 역사: 교부시대에서 현대까지 기독교 사상의 흐름』. 경기도:知와 사랑, 2016.
- Mondin, Battista. *Storia della Teologia I*. 조규만 외 3인 역. 『신학사 1』. 서울:가톨릭출판사, 2012.
- Oulton, J. E. L. *Alexandrian Christianity*.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6.
- Pagels Elaine and L. King, Karen. *Reading Judas: the Gospel of Judas and the Shaping of Christianity*. New York: Viking Press, 2007.
- Pamphilus, Eusebius. *The Ecclesiastical History of Eusebius Pamphilus*. trans. C. F. Cruse. Oregon: Watchmaker Publishing, 2011.
- Pelikan, Jaroslav. *The Emergence of the Catholic Tradition(100-600)*.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1971.
- Placher, William C. *A History of Christian Theology: An Introduction*. Kentuc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83.
- Polycarp, "To the Philippians." In *Early Christian Fathers*. Ed. Cyril C. Richardson.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6.
- Richardson, Cyril. C. Ed. *Early Christian Fathers*.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6.
- _____. Richardson, Cyril C. "The Church in Ignatius of Antioch." *The Journal of Religion* 17 (1937): 428-443.
- Ritter, A. M. *Kirchen-und Theologiegeschichte in Quellen: Alte Kirche*. 공성철 역. 『고대교회 : 교회와 신학의 역사 원전』,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19.
- Schaff, Philip.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Vol. II*.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22.
- Schmid, P. Bernhard. *Grundlinien der Patrologie*. 정기환 역. 『교부학 개론』. 서울: 도서출판 콘트롤디아사, 2003.

Stark, Rodney. *The Rise of Christianity: A Sociologist Reconsiders History*.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6.

Walker, Williston. *A History of Christin Church*.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22.